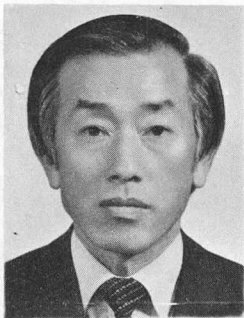


● '88년을 보내며

# 축산학계를 돌아본다



김 강 식

(한국축산학회 회장)

동과 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념까지 초월한 인류의 대제전인 '88서울올림픽은 전세계인이 깜짝 놀란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는 대단히 향상되었으며, 우리의 민족사에는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정치에서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민주화된 새로운 정치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또 한가지 뜻깊은 일은 8년째의 풍년농사가 '88년에

는 다수확 품종이 불과 18%만 재배된 상황에서 쌀생산량이 4천2백3만8천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풍작을 이루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88년에는 역사에 남길 많은 일을 이룩했으며, 여러가지의 큰 변화도 겪었다.

이와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속에 우리의 농업도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지상의 과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향상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임은 누구나 다 말하는 사실이지만, 우리 농가의 현실이 영세하고 아직도 쌀농사가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향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최근 7.8%라는 급성장을 하는데 반해, 농림수산부문의 성장률은 3%에 불과하며, 국민총생산액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는 29.1%이었으나, 1980년에는 17.5%, 1986년에는 15.1%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와같은 현실은 소농간 소득의 격차를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

그런데 축산업은 농업에서의 산업적인 위치가 대단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니 농림수산부문의 3.7% 성장에 비해 12.1%라는 상대적인 고도성장을 하였으며, 농산물 생산액중 축산물의 생산액은 10년전인 1976년에 14.6%이었으나, 1986년에는 24.3%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농가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조수입중 축산수입 역시 1976년에는 10.1%에 불과하던 것이 근

간에는 17.6% 수준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여 농업에 있어서의 축산의 비중증가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농가소득면에서의 축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가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의 국내의 여건에는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주요작물이면서 농가소득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우의 가격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호당 사육 규모의 영세함과 언제 또 맞이할지 모르는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한 심리로 임기응변적인 사육형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농가의 한우사육에 있어서의 큰 문제의 하나이다.

설상가상으로 값싼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거센 압력은 급기야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후사료의 자급도가 30%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막대한 양의 사료곡물을 외국에서 도입하여야만 하는 외국 의존형 축산을 하면서도 농후사료의 소비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금년에는 더욱 불안스럽게도 사료곡물의 주요생산국이며 우리수입 주대상국의 한발에 의한 흉작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만일 곡물이 무기화까지로 발전한다면 우리 축산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급하면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시대에서 우리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축산학계는 '88년에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 우선 전환기 축산업의 새 방향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한국축산학회가 축산신보사와 공동으로 지난 4월 14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이 각 과제별 주제 발표는 사계의 원로 및 권위자를 다수 초청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라 정책기관, 학계, 시험연구기관, 업계, 양축농민 등 300명이 넘는 축산인들에게 전환기를 맞은 축산업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고 본다.

또한, 지난 6월에 핀랜드의 헬싱키에서 개최된 세계

축산학회의 한국축산학회 회원이 41명이나 참석하여 38편의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참석한 외국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축산학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난 7월 23일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제38회 한국축산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가축육종·번식·영양·사양·사료·가공 등 각 분야에서 수많은 귀중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축산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되었다. 특히, 이 정기총회에서 축산학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과 축산학회 활동의 진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첫째, 축산학회는 국제화·개방화와 우리 농업이 상농업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축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연구 제시하며,

둘째, 축산농가, 축산관련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당면 축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제를 발전시키며,

셋째, 축산학회 1,300명 전회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축산학계는 우선 양축농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과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첨단기술인 생명공학 등을 활용하여 가축의 개체 생산능력 제고와 사료효율의 향상 및 새로운 사료자원의 개발 등에 힘써야 하고, 새로운 품종의 육종이나 우수가축의 증식을 위한 체외수정, 수정란이식 등의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가축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한우나 젓소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사료 생산자급을 위한 실질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초식가축의 주사료가 해결되고 도입 농후사료가 절약될 것이다.

학계는 물론 시험연구기관, 관계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88년에 못다한 과제를 '89년에는 모두 이룩하였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